

자연생활과 야생동물

원숭이 社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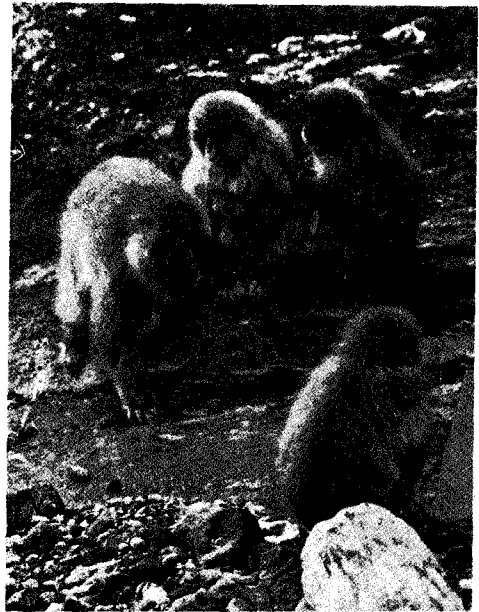
安 允 植

(대한제당 무지개사료)

〈種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을 저술하여 오늘날 生物界의 進化論의 基반을 이룬 〈찰스다윈〉은 그의 進化論에서 사람과 원숭이는 같은 祖上動物에서 분화하여 발달한 것이라고 하였다.

침팬지(Chimpanzee), 오랑우탄(Orang-Utan), 고릴라(Gorilla) 등의 類人猿類(APE)와 원숭이 무리(Monkey family)는 人間과 그 모습이 흡사한 관계로 그들의 行動이 특별히 우리에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매력을 느끼게 한다.

원숭이는 세계 각처에 여러종류가 살고 있는데 특히 가까운 日本에서 繁殖하고 있는 日本원숭이(Japanese Macaque)는 社會性이 몹시 組織的이고 人間の 엄한 群居性인 社會 그 것과 흡사하여 많은 人類 學者들의 研究대상이 되고 있다. 이 원숭이의 群居性은 人間の 社會와는 비교될 수 없는 일개 動物의 社會이긴 하지만, 그들의 種族유지를 爲한 集團生活에의 勞力은 보는 이로 하여금 原始 人間社會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아서 人類가 처음 지구상에 나타나서 어떻게 集團을 구성하여 社會를 이루어 왔는가를 추측할 수도 있는 資料로서도 充分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日本의 섬지방, 숲지대, 해변가 등지가 生活의 터전인 일본원숭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기껏 動物園이나, 극히 소수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애호가 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것이 고작이지만 섬이 많은 日本에는 온통 하나의 섬이 원숭이들로만 가득차 있는 “원숭이 천국”이 있는가 하면 웬만한 公園지대에는 무제한 放飼가 되고 있어 항상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도록 되었고, 이를 利用한 관광으로도 各광을 받고 있어 원숭이라면 日本을 빼놓을 수 없을 듯 하다. 한 때는 2차대전, 공해 때문에 出産되는 원숭이 중에는 기형아가 태어나, 그들의 自然保護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하였다.

원숭이는 보통 20년 가까이 살고 암컷은 4세에, 수컷은 5~6세가 되면 成獸가 되

어 繁殖이 가능하고 연중 5~8月경. 분만하게 된다. 生活習性은 群居性 動物에게서 흔히 볼수있듯이 서열에 의한 組織이 돼있어, 원숭이 群中에는 우두머리(리더 또는 보스라함)가 있어 가장 힘세고 경험있는 수컷이 이 직책을 맡아서 자기 혈연그룹의 대표자, 통제자, 敎育者로서의 구실을 한다. 고요한 숲속에는 보스가 지정해준 장소— 언덕위, 나뭇가지 꼭대기등 조망이 유리한 곳—에서 경계를 하던 젊은 원숭이가 외적의 침입을 감시하던중 자기들 영역으로 누군가 침입자를 발견하면 즉시 보스에게 연락을 한다(신호는 나뭇가지를 흔들며 낸다거나 특유의 울음소리)

리더는 곧 온 무리를 안전한 곳으로 불러서 한곳에 모이게 한다음 더 피할 여유가 없을때는 전체를 대표하여 나아가 공개 결투를 한다. 이것은 “징기스칸의 결투”처럼 목숨을 건 투쟁이니 이러한 용기가 없으면 영도자로서의 자격을 잃게되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없어지게 마련이다. 싸움에 승리하면 더욱더 그룹내에서는 인기가 상승되고 늙으면 후계자에게 보스의 자리를 물려주고 자식들과 제 1부인의 극진한 대접을 받게된다.

동물의 世界에도 그나름대로의 意思 전달 方法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事實이지만 원숭이 에게는 원숭이끼리만 통하는 30여가지의 특이한 소리가 있어 이것이 원숭이 言語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學者들은 그 소리의 강약, 장단, 속도 등을 구별하여 그들의 행동의 方向이나 心理를 파악하였다고 한다. 앞서 원숭이 社會는 원시 人間 社會의 축소판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설명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원숭이 세계는 상하 계급이 뚜렷한데 물론 계급이라는 뜻은 힘과 경험에 의한 서열이 되겠지만, 그들 세계에서는 범할수 없는 「물」이 지켜지고 있

다. 가령 동물원에 가서 가까이 닥아오는 원숭이들중에 어린 새끼 원숭이에게 먹줄 것을 던져 주어 보면, 새끼들은 뒤켠에서 지켜보고 있는 보스의 눈치만 살필뿐 감히 집으려 들지 않으려 할 것이다. 배가 몹시고파도 보스가 손을 대기전에는 먼저 건드리지 않는다. 보스가 어슬렁 거리며 나타나서 만져보고 냄새맡고 한 다음 내려놓으면 이때야 서슴없이 달려들어 집어 먹는다. 그들만의 엄한 규율같은 무엇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숭이 생활습성中에는 원숭이 무리에만 특이한 “털다듬기”(grooming이라고도 한다)라는 것이 있는데, 따뜻한 양지나 서늘한 그늘아래 모여 서로의 몸을 맞대고 열심히 신경을 집중하여 상대의 털을 해집고 손가락으로 쓸고 하면서 무언가 털사이에서 꼬집어 내어 입속에 넣고있는 풍경을 관찰할 수 있다. 이들은 활동을 중지하고 싶대면 으레껏 이것들을 하는데, 얼핏보면 마치 이를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이것을 원숭이가 이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털다듬기는 피부를 청결히 하고 체표면에 배설된 염분을 섭취하는 自養구실도 하며, 더큰 意味로는 그렇게 상대를 쓰다듬어 주므로써 원숭이 社會의 단결이나 애정의 가교구실이니 멋진 습성이 아닐수 없겠다. 어쨌든 원숭이들은 털다듬기(그루밍)를 통하여, 때론 성난 친구를 달래주고, 평화를 사랑하는자의 애정의 表現이기도 하겠으며 必要에 따라서는 강한자애의 귀속감을 나타내는 야침구실도 하는것이니, 조용한 곳에 지그시 눈을 감고 누운 할아버지 원숭이를 손자 원숭이들이 주위에 둘러앉아 구루밍하는 모습이란 꼭 할아버지 신경통을 위해 등과 팔다리를 주무르고 있는 손자들을 연상케 되니 어쩌면 원숭이는 지극히 옛부터의 동양관습에

젓어온 동양적인 動物이라고 해야겠다.

한편 원숭이 世界의 2세 敎育을 보면 철저한 母性愛의 動物임을 實感케 한다. 動物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새끼를 養育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않는 경향이 있어 다른면에서 생각하면 수컷들의 새끼에 대한 無關心은 寬容의이라고 表現되기도 한다. 새끼들이 아버지 원숭이들틈에 달려들어 장난치고 얼굴을 잡아당기고 하여도 귀찮아 하지않고 오히려 새끼들이 위험에 처할때는 그들을 구해내기도 한다. 그렇지만 새끼양육의 주인공은 역시 어미인것이다. 갓 태어난 새끼들은 젓먹는것부터, 따뜻하게 해주는것, 목욕을 시켜주는것등 일체가 어미에게 달렸으니 人間이 갓 태어난 어린애였을때 따뜻하고 정성어린 母의 保護 養育에 그아이의 全部가 달려있는것과 다르게 무어있겠는가. 원숭이는 태어난 처음 몇 달간은 항상 어미곁에 붙어 다니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항상 네발로 걷는 어미의 배 밑에 하늘을 향해 착 달라 붙어있는게 보통이다. 조금 지나면 곧 배에서 등으로 올라와 등에 업혀 다니게 된다. 그후 더 몇달이 지나면 이제 등에서 땅으로 내려와 걸음마를 배우고 무언가 주위의 새로운 것을 탐색하게 된다. 이때서야 비로서 새끼 원숭이의 시력도 정상기능을 갖게 된다고도 한다. 때로는 다른 또래들과 어울려 장난치는 법도 배운다. 그래도 아직은 겁쟁이여서 어미에게서 멀리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곧 황급히 어미곁으로 달려들어온다.

새끼에게는 母원숭이는 젓주고 잠재워 주고 保護해주는 基本的인 役害외에도 항상 어미가 곁에 있다는 사실 즉 어미와 새끼가 一定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안심하다는 느낌 (Feeling of Security)을 주고 있음을 알수 있다. 우리네 갓난아이들이 母의 젓을 먹으며 母의 체온과 피부의 접

촉을 느낄때 안심하고 편안히 잠드는 것과 또 다를바 있겠는가. 人間이 飼育하는 원숭이를 研究한결과 원숭이들이 어미의 가슴에서 등으로 등에서 땅으로 차츰 保護의 領域이 넓어짐에 따라서 새끼원숭이는 다른 또래의 조무래기 원숭이들과 함께 어울리는데 이때가 원숭이 社會의 敎育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것 또한 알려져 있다. 즉 다른 또래들과 어울리는 동안 나무를 타는 재주라든가 먹이를 반듯이 물에 씻거나, 손으로 닦아서 먹는 方法이라든가, 다른 動物이나 원숭이들을 대하는 매너를 터득하게 되고 곧 원숭이 社會의 組織속의 한 멤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 원숭이중에는 母性이 너무 강한 탓인지 절대로 새끼를 자기의 팔이 뻗칠수 있는 범위 밖으로는 내놓지 않아서 다른 성숙한 원숭이가 된 후에도 社會的인 고립자가 되는수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지극히 무관심하여 (주위환경 탓으로 새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새끼를 멋대로 내버려 두어, 다 큰후에도 얼핏하면 集團內에서 「물」을 어기고 말썽을 일으켜 보스에게서 벌을 받는다든가 이단자가 되는수가 종종있다. 이또한 子息을 養育함에 있어 過保護하거나, 無關心하여 社會組織內에서 훌륭히 적응치 못하는 人間事中的의 一面과 같은것. 그래도 대부분의 원숭이나 類人猿무리는 비교적 本能에 가까운 敎育에 대한 習性이 있어 잘 되고있고 특히 어미들끼리는 社會的으로 잘 결합되어있고 또 새끼와 어미의 유대관계는 一生동안 연결되는 습성이 있으니 자라서 독립해버리면 부모를 잊어버리는 냉철한 動物의 世界에서, 어떤 動物보다도 강한 유대감과 모성애를 갖는편이라, 정말로 人間을 닮은 흥미거리의 動物임을 부인할수 없는것 같다.